

# 세계최초의 맥주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상용화에 성공하겠다

(주)바이피엘 박준원 대표이사

향후 5년 안에 '세계최초의 맥주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상용화에 성공하겠다'는 건강한 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 (주)바이피엘의 박준원 대표이사를 만나보자

(주)바이피엘의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현재 (주)바이피엘은 나노바이오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및 향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바이피엘은 바이오나노 소재 및 에너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핵심원료 및 소재 생산 그리고 기술이전을 통한 공동 사업화를 향후의 중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표제품인 나노 플라티늄과 미생물 셀룰로오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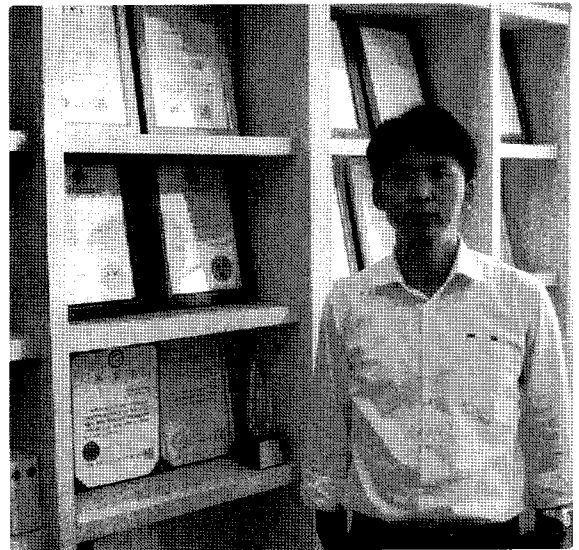
나노플라티늄은 대표적인 촉매물질이자 항산화 물질인 플라티늄(백금)을 산삼배양근 추출물인 진세노사이드와 결합하여 2~4 나노크기의 입자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러한 나노입자의 입자는 강력한 촉매 및 항산화 성질을 갖게 됨과 동시에 경제성도 갖추게 됨으로써, 기능성화장품, 향균제품 및 촉매용 제품 등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범용소재입니다.

미생물셀룰로오스는 박테리아가 배양하여 만드는 3차원 그물망 구조의 소재로서, 80~100 나노 굵기의 미세 나노 섬유 특징을 가짐으로써, 화장품 소재 및 나노필터로 그 응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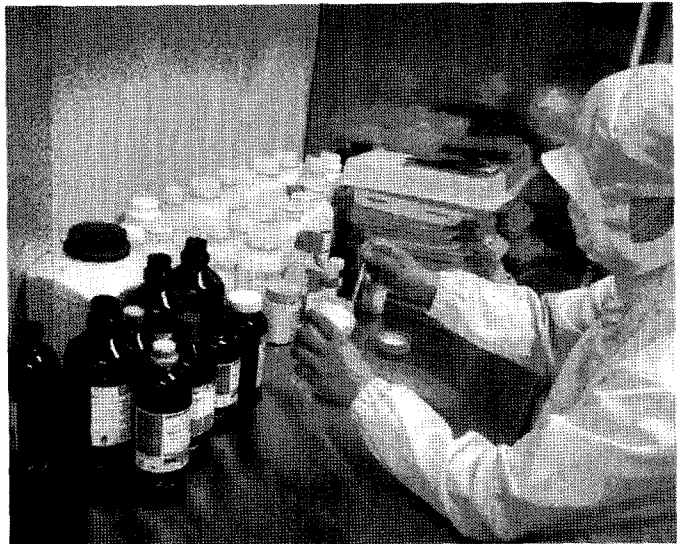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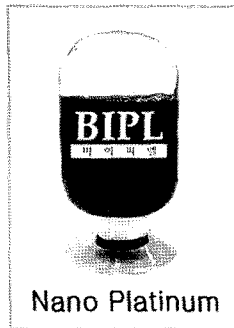
두 제품 모두 핵심 바이오나노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그 응용성이 뛰어나,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에 그 응용이 기대됩니다.

대표님께서 향후 에너지 및 소재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안정적 회사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핵심 기술을 이용해 나노셀마스크팩 등의 생산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심원



(주)바이피엘  
박준원 대표이사



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다른 기업들과의 공동사업화도 같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맥주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제조기술의 경우도 개발된 기술을 국내외의 맥주제조업체 및 에너지 관련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피엘의 경우 보유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사업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상대회사의 경우도 새로운 사업 및 수익모델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님의 경영비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바이피엘은 3년이 됩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4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우선 해외 수출 1백만 불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많이 미진한 국내에서도 자체 제품의 판로를 확충하여 조금씩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2년 이내에 국내외에 바이오셀룰로오스 마스크팩 전문 생산업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백금나노 항균제품 생산업체로서의 포지셔닝을 확대하며, 향후 5년 안에 '세계최초의 맥주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바이피엘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이피엘의 외형상 성장보다는 내면상으로 알차고, 회사의 성장이 직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같이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바이피엘의 임직원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항상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만이 기업으로서의 (주)바이피엘이 존재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이자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EO를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CEO를 꿈꾸시는 분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사실은, CEO란 자리는 결코 폼나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CEO의 모습은 결코 허상일 뿐 사실은 크게 다릅니다. CEO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며, 누구보다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견뎌낼 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발명특허 2009. 10】